

# GMP 귀국 보고서

## 인적사항

성명	김인전	학번	
이메일	ijbach@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Kentucky	(국가) U.S.A.
기간	2021.1.25~2021.12.17	[귀국일: 2021년12월23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2월 21일

신청인 : 김인전 (인)

##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켄터키대학이 있는 켄터키주의 렉싱턴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틀란타나 댈러스, 시카고 중에서 경유지 공항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댈러스로 들어갔습니다. 아틀란타에 비해 덜 복잡해서 연착도 없는 편이라 더 좋았습니다. 예전 선배기수의 경우 애틀란타는 연착되는 경유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마틴스쿨 내의 한국인 담당 교수님이신 김두옥 교수님께서 세심하게 정착을 준비해 주시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정착을 도와주는 선생님 한 분을 고용하여 그 분께서 정말 세심하게 하나하나 순조로운 정착이 될 수 있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셔서 아주 만족스러운 미국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학기 초 인터내셔널 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등 외국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렉싱턴은 미국 중동부에 위치한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백인이 많고 교육수준도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기후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비는 작은 양으로 자주 오는 기후를 가진 것 같습니다. 여름의 습도는 일반적인 미국의 내륙도시보다는 더 높아서 우리나라와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겨울은 우기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다만, 늦봄부터는 환상적인 날씨가 펼쳐집니다. 특히 가을이 꽤 길고 초겨울까지도 날씨가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합니다. 미세먼지는 ㅎㅎㅎ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저는 렉싱턴의 남서쪽에 위치한 버몬트 지역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 쪽에 정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로사파크 초등학교"가 렉싱턴 시에서는 가장 우수한 초등학교라서 아이들 교육에 매우 좋은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사파크 초등학교는 아침 7시30분까지 아이들을 데려다 주어야 하고, 오후 2시30분에 데리러 가야 합니다. 저는 버몬트 팜스 아파트에서 살았고 학교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하에서도 학교는 대면수업이 진행되었으며, 학교내 마스크 착용 및 소득 등 방역은 꽤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도시내에서도 부촌으로 평가되며 백인비율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파트 임대료 및 전기료, 수도료, 하수료는 한달에 약 \$1,300~1,400 정도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버몬트 지역이 예전 신도시로 계획개발 되다보니 버몬트 팜스 아파트 주변에는 "크로거"(대형 식료품 마트)와 우체국, YMCA, 그리고 버몬트 도서관이 있어 생활기반시설이 아주 우수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제가 공부했던 켄터키대학원의 공공정책대학원인 "마틴스쿨"은 매우 우수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정책 분야 대학원 평가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우수한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시절에는 캡스톤도 면제된 조건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학업에 큰 부담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진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 미국 언론에도 종종 교수님의 업적에 대한 인터뷰도 실리곤 한답니다.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공공정책에 대한 정책과정 수립, 과정 및 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초과목들도 동시에 수행되고 있습니다. KDI에서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로 SPSS를 이용한 반면, 캔터키에서는 분석프로그램으로는 STATA를 주로 쓰고 그 프로그램을 지도해 주는 강의도 있는데, 매우 흥미로웠고 실제로 STATA가 미국의 많은 논문에서 가장 선호되는데 비하여 국내에서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고, 활용도가 적다는 것이 좀 의아할 정도로 STATA는 사회 경제적 현상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우수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캔터키 대학원의 마틴스쿨에서는 자기가 재량으로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없습니다. KDI학생을 위해서 특정 과목을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봄학기 3과목, 가을 학기 4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각 수업은 통계학, 경제학 등의 기초과목과 조직론, 정책론 등의 주요과목이 있으며,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우수한 커리큘럼이다 보니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KDI에서 그랬듯이 각 과목마다 성의를 다한다면 학위수여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며, 교수진들도 우리 학생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기숙사는 없었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주거지를 정하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아파트 생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주변의 자연경관도 좋았고, 쇼핑도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렉싱턴에는 H마트가 없어서 한국음식 재료를 저렴하게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동양마트와 서울마켓이라는 한인마트가 있기는 하여 식자재 구입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내인 니콜라스빌에 위치한 코스트코, 월마트와 크로거를 많이 이용했으며, 가전제품은 베스트바이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쇼핑하고 조금 사용한 물건도 환불이 자유로운 점이 우리와 아주 큰 문화차이였습니다. 또한, 식자재가 한국과 비교하여 아주 저렴한 편이어서 생활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주 갔던 음식점으로는 "텍사스"의 스테이크, "버팔로링"의 치킨, 및 "레드 랍스터"의 랍스터와 스테이크가 맛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어디가나 스테이크가 가격대비 아주 훌륭합니다.

###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여기에 학위과정 및 비학위 과정으로 오신 분들은 취미생활로 와이프와 함께 골프도 많이 즐기시는 편이었는데, 다들 너무 재미있어 하셨습니다. 저 또한 아주 즐겁고 저렴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와이엠씨에이에 등록하여 수영과 헬스를 할 수 있어서 건강증진에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경우는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켄터키 지역이 미국의 중앙부라서, 비행기를 이용하지는 않았고, 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올랜도의 디즈니월드, 유니버설 등을 여행하였고, 또 텍사스도 여행하였습니다. 여름방학 3개월동안은 렌트카로 서부, 동부를 여행하였고, 겨울에는 멕시코 칸쿤을 저렴하게 여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정리되었다면, 겨울 귀국 전에는 바하마의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웠습니다. 그 결과, 미국내 각 주의 특색있는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6.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GMP 2년차 외국 교육과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켄터키는 아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라서 이곳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켄터키를 사랑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전반적으로 미국은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통관절차를 시행합니다. 해외 생활은 "구글 맵"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호텔예약은 호텔스닷컴으로 하였고 중저가 호텔로는 "Home2 suites, 컴포트 인 또는 베스트웨스턴 등"을 추천드립니다.

##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시는 분은 켄터키대학원 마틴 스쿨의 EMPPI과정 선택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켄터키주 렉싱턴 시에서의 생활에 온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만족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원(켄터키대학원 마탄스쿨)은 학문적으로도 훌륭한 학교이며 교수님들도 너무 좋고 학생들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풍을 가진 학교로서, 제가 경험했던 교육기관 중 가장 모범적인 곳이었습니다. 혹시 켄터키 대학원이 있는 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미국내 위치라든지 학교의 수준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점 참고하여 켄터키를 선택하시면 모든 면에서 후회가 없으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 GMP 귀국 보고서

## 인적사항

성명	이 찬 주	학번	
이메일	Hey33187811@naver.com		

대학원명	University of Kentucky / EMPP	(국가) 미국
기 간	2021. 8.2 - 12.8	[귀국일: 2021년 12월 8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2월 31일

신청인 : 이 찬 주 \_\_\_\_\_ (인)

### 1.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GMP 유학가시는 분들과 달리 1학기만 미국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봄학기는 한국에서 온라인강의를 들었고, 가을학기에는 학교 수업이 정상화 되어 가을학기만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이었기 일반적으로 KDI에서 유학가시는 분들이 켄터키대학으로 가실 경우 머무르는 숙소에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기로 했고, 초기에 정착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켄터키대학에는 한국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차량은 인계를 받아서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켄터키에서 1년을 다 지내지는 않았지만 맑은 공기가 인상적이었고, 시골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 2.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켄터키대학은 KDI 학점을 9학점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7개 과목(21학점)을 수강하면 되어서 학업의 부담이 조금 덜한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었고, KDI에서 수강했던 과목들과 연계도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학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켄터키대학의 경우에는 과목을 선택할 수 없고, 주어진 7개 과목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없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목수가 많지 않고, 봄학기 3개 과목(9학점), 가을학기 4개 과목(12학점)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논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기간이나 가을학기에도 부담을 훨씬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을학기에 들어야하는 과목이 봄학기에도 운영된다면 달리 수강신청을 하실 수는 있지만,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학교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수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4.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켄터키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외적으로 짧은 기간을 거주하다 보니 다른 곳에 머물렀지만, 전임자분들에게 아파트를 인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5.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저는 짧은 시간을 있었기 때문에 켄터키에서 많은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는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보육시설 이외에도 미술활동, 체육(GYM)활동을 하는 시설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특정 요일에만 있었기 때문에 주말이나 평일을 이용해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켄터키가 중부에 위치해 있어서 동부나 서부까지 가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중부의 다양한 도시들을 여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 6.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을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뒤늦게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을학기에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커리큘럼 자체는 만족스러웠고, 미국 생활도 뒤돌아보면 굉장히 즐거웠던 경험으로 기억됩니다.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였고,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생활자체는 수업 이외에는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은 없었습니다.

KDI에서의 GMP 1년차도 매우 좋았지만, 2년차는 더더욱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7.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나 출입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말씀이 없을 것 같고, 가장 불안하시고 걱정이 되는 것은 코로나 상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미국에 갔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는 매우 많지만 야외 공간이 많고, 땅이 넓다 보니 일구 밀집도가 그리 크지 않아 조금은 덜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어디를 가도 저희 가족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한국에서처럼만 스스로를 잘 보호하고 다니신다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검사도 학교에서나 마트 등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걱정은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8.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GMP 2년차에 대한 기대감이 많으실텐데 좋은 선택하셔서 소중한 경험을 많이 쌓으시

길 바랍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학비, 생활환경, 학업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켄터키 대학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도심보다는 조금 한적한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곳이지만 복잡한 도시보다는 한적한 곳을 원하신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곳 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메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